

정밀아, 함부로 위로하지 않고 대신 물어준다... '리버사이드'

3년 만의 정규 음반... '현재성'·'현재감'을 담은 역작
“제가 계속 흐를 생각을 먼저 하는 게 가장 기본”

싱어송라이터 정밀아의 노래는 유독 공간적이고 공감각적이다.

그녀가 몸 담고 있는 지역성이 배어 있고, 현재 고민 중인 내용들이 통시각각을 통해 공감대의 폭을 넓힌다. 최근 발매한 정규 4집 '리버사이드' 역시 스스로 거룩하기 힘든 세상에서 스스로 흐르고자 하는 정밀아의 의지가 만들어진 산물이자 역작이다.

비겁한 세상에 대한 냉철한 이성적 공부 끝에, 함부로 위로하지 않은 신중함을 택하며 아픈 자들을 대신해 물어줄 수 있는 살풀이. 그건 타인 혹은 타인의 이야기를 경솔하게 재단하지 않고, 소리와 말과 마음을 귀하게 여겨 현재를 애곡하지 않고 기록한 시대의 일지가 된다. 정밀아의 노래는 그렇게 '강력한 현재감'을 동반한 일종의 체험이 된다. 다음은 최근 공덕역 인근에서 만난 정밀아와 나눈 일문일답.

-지난 앨범도 마찬가지로, 이번 앨범은 유독 더 고민을 많이 하신 듯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었죠. '어떻게 계속 내 이야기를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1집, 2집, 3집은 비교적 그제 수월하게 떠올랐어요. 4집은 노래를 계속 만들고는 있었는데, 그걸 하나로 모으는 무엇인가 없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앨범의 시작이 된 마포대교 위의 장면을 제가 만나버린 거예요. 전에 해놓은 걸 다 폐기하고 그때부터 이야기를 다시 시작했죠. 근데 주제가 너무 넓었어요. 어떤 슬픔에 대해 얘기한다는 게 조심스럽고요. 타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전쟁 이야기에 대해 '한낱 작은 음악가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음악가의 태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머리가 복잡해서 많이 어려웠죠.”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건 어렵고 아픈 일이라는 걸 노래하는 여성 밴드 트랙 '운다'가 그 중에서도 가장 진중함 트랙입니다. 무려 7분31초짜리 장대한 곡이죠. (전쟁터의 굉음, 난민보트위의 절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곡을 쓰기 위해서 이것저것 찾아본 것에 대한 알고리즘이 많은 역할을 했어요. 보여지는 이야기에 대해 외면을 못하겠더라고요. 이미 내 눈에, 내 마음에 꼭 들어와 버린 이야기들에 대해 노래로 무엇이든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 자료들을 보고 사람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심리적으로 어려웠던 것 다음으로는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의 균형을 맞추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잘 들려줘 할 것인가?' 아니면 '신선한 연주 방식을 택할 것인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죠. 전작들을 통해 제가 더 잘할 수 있겠다 싶었던 걸 더 잘하려 했고, 이야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면 이야기 전달에 더 뭐 비중을 심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한 현실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많아서 더 대단한 음반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는 일은 어렵잖아요. 외면을 한다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하죠. 몇 년 전 서울역 근처에서 우는 사람 몇 명을 봤어요. 울음을 도저히 못 참는 청년을 봤고, 공중전화 부스에서 수화기를 든 하리 굵은 할머니 한 분이 힘겹게 울고 있는 걸 또 봤죠. 그 장면들이 잔상으로 꽤 오래 남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머릿속에 계속 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전쟁을 소셜 미디어와 유튜브 등에서 보게 됐고, 음악을 넘어 사람으로서 왜 사람들이 울어야 하는지를 알아야겠다고 생각해 계속 관련 자료를 찾고 보게 됐죠. '내가 뭘든 전쟁에서 우는 사람들을 음악에서 다루'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적어도 전 음악이라는 저장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담아 놓으면 누군가에 환기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현재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모습이 세상 어디엔 어디'에 대한 기록이라고 생각해요.”

-앨범 발매 주기가 3년입니다.

“2집을 만들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됐는데, 앨범을 제가 가을에 내거든요. 연말까지는 앨범 관련 무언가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해는 진짜 공연만 하면서 다음 앨범에 대한 워밍업을 하는 거죠. 마지막 해에는 10월에 앨범 작업을 끝내야 되니까 연초부터 진짜 본격적인 작업을 하고, 이렇게 3년을 보내니까 저한테 적절했어요. 급하지 않은데 약간 긴장감도 있고, 제가 다작을 하지 않는 편이잖아요. 3년이면 팬분들도 기다려주시길 만한 기간인 거 같아요.”

-이번 앨범은 서사도 주목할 만하지만, 무엇보다 공간감이 느껴지고 공감각적이라서 좋았어요. 내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사운드적인 측면에서도요. 3집 '청파소나타'는 전에 사시던 청파동의 공간감이 잘 느껴졌고 이번 4집 '리버사이드' 역시 이사하신 공간에 대한 공감각적인 측면이 잘 느껴지는데요. 공간이 음반에 미치는 영향들이 분명 있죠?

“한강은 제가 워낙 옛날부터 많이 다녔던 곳이기도 해요. 20대 때부터 '한강에 대한 노래를 언젠가는 한 곡 쓰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이 근처 동네(마포대교 북단)로 이사 오면서 '한강에 대한 뭘가는 하나 있겠다'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대놓고 '리버사이드'(Riverside-강가)가 될 줄은 저도 몰랐죠. 한강 다리를 건너는 일들은 완전히 다른 시각적인 느낌을 줬어요. 이렇게 큰 서울에서 이렇게 넓은 강을 매일 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감정적인 작용이 있는 거 같고요.”

-무엇보다 사운드가 '지금의 소리' 같아요. 첫 트랙 '장마'를 여는 빗소리 등 앰비언트 요소가 곡에 잘 녹아들어가 있어요.

“현장감, 입체감도 있지만 '현재감'이라는 것이 떠올랐거든요. '내가 공감각으로 뭔가를 받아들일 때 현재를 기록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그 중 하나가 마치 연주의 한 부분인 양 소리들을 넣는 거였어요. 그 소리들은 진짜 열심히 녹음했어요. 같은 빗소리더라도 앞 배란다에서 녹음하는 소리와 뒤 배란다에서 녹음하는 소리가 다르거든요. 또 보통 배란다 문이 두 겹이잖아요. 두 겹을 다 열고 녹음한 소리, 한 겹만 열어놓고 녹음하는 소리가 다르죠. 전철 소리도 1호선, 4호선 소리가 다 다르고요.”



요.”

-앨범에 실린 모든 곡이 좋았지만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트랙 '서울'이 너무 좋았어요. '잘 들어봐. 내가 지금부터 이런 저런 얘기를 해줄게'라고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딱 그거예요. 원래는 지금보다 더 친절하고 더 상냥하게 더 안부를 전하는 내용의 가사였어요. 그런데 너무 오글거려서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조금은 더 담담하게 바꿨어요. 이 트랙부터 40-50분간 계속 얘기를 할 텐데 현재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저도 스스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재 어떠한지에 대해 가득 적었어요. 그 다음에 이야기와 각 문장들이 잘 이어지고, 노래 부르기에 좋게 잘 다듬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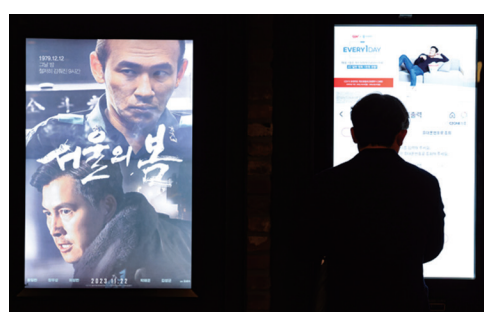
-앨범 발매 이후 활동은 어떻게 됩니까?

“앨범 발매 기념 공연은 몇 달 있다가 할 거예요. 앨범을 낸 뒤 3개월 안에 발매 공연하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큰 숨을 너무 한번에 다 내뿜어 쉬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리고 앨범과 공연이 너무 한 세트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포맷을 좀 더 키워서 새로운 구성원들 함께 하고 싶어요. 또 제가 혼자 기다리고 공연을 많이 하잖아요. 이 형식이 테마를 잘 잡아서 체계를 갖추고 싶고요. 그렇게 두 트랙으로 공연을 하고 싶어요.”

“제 노래가 계속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하면 천천히 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작들도 그렇고 이번 앨범도 그렇고 '아주 새로워야지'라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큰 충격이나 고난을 겪지 않고서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완전히 새로운 걸 갖고 나오기 힘들죠. 대신 3집 때도 그랬고 이전보다 '30%는 변화를 주자'는 마음으로 담벼 들어요. 무엇보다 저라는 사람 자체가 고여 있지 않고 계속 흐르려면 절대 똑같은 건 안 나올 거라는 믿음이 있고요. 제가 계속 흐를 생각을 먼저 하는 게 가장 기본인 거 같아요. 아티스트 자체가 계속 흐르는 사람이면, 그 결과물도 계속 강처럼 흐르겠죠.”

-긴 호흡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서울의 봄', 팬데믹 이후 첫 非 시리즈물 누적관객 800만 ↑



흥행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서울의 봄'(감독 김성수)이 개봉 25일 만에 누적관객 800만명을 넘겼다. 1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

개봉 25일 만에 거둔 성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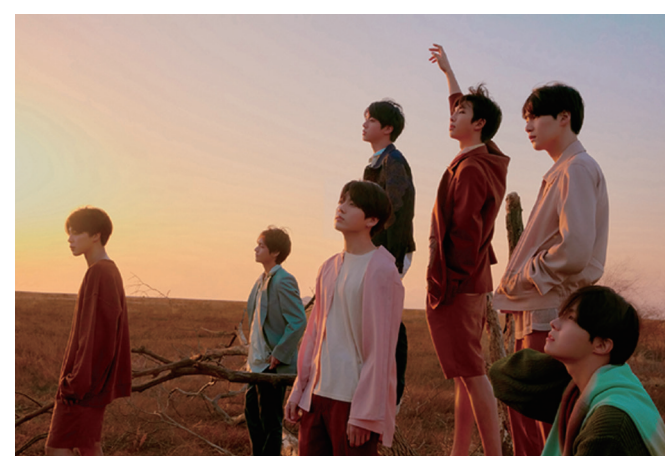
산방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개봉한 '서울의 봄'은 이날 0시 기준 누적 관객 수 818만5411명을 찍었다. 올해 '범죄도시3'(누적관객 1068만명)에 이어 올해 전체 박스 오피스 톱2에 등극했다.

특히 '범죄도시2'(2022), '탐간: 매버릭'(2022), '아바타: 물의 길'(2022), '범죄도시3'(2023)와 같이 팬데믹 이후 800만을 돌파한 영화 가운데 유일하게 시리즈가 아닌 단일 작품이다. 개봉 24일 연속 전체 박스오피스 1위 자리

도 놓치지 않고 있어 이번 주말에도 흥행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 추세라면, 이번 주말에 누적 관객 900만명 돌파도 예상된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당한 뒤 같은 해 12월12일 한사회가 중심이 된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군사 반란을 일으킨 실제 사건을 영화화 했다. 한사회는 전두환이 주축인 군대 내 사조직이었다. 황정민은 전두환이 모티브가 된 캐릭터 '전두광'을, 정우성은 장태완 장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인물인 '이태신'을 연기했다. 박해준이 전두광과 군사 쿠데타를 주도하는 '노태건'을 맡았다.

방탄소년단의 노래는 군백기가 없네



“이별은 내게 티어 / 나도 모르게 내 눈가 위에 피어 / 채 내뱉지 못한 얘기들이 흐르고 미련이 나의 얼굴 위를 기어”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일곱 멤버들이 전원 군 복무에 돌입한 가운데 이들의 노래는 군백기(군대+공백기)가 없다.

15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지난 2018년 발매한 정규 3집 '러브 어 셀프 전 티어(LOVE YOURSELF 轉 Tear)'의 수록곡 '아웃트로 : 티어(Outro : Tear)'가 전날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기준으로 전 세계 43개 국가/지역 아이튠즈 '톱 송'에서 1위를 찍었다.

또 전날 기준으로 '월드 와이드 아이튠즈'와 '유리피어 아이튠즈' 송 차트의 정상에 오르며 방탄소년단 대표곡 '봄날'과 순위 배턴터치를 했다.

방탄소년단이 지난 2017년 발매한 앨범 '윙스(WINGS) 외전: 유 네버 워크 얼론(YOU NEVER WALK ALONE)'의 타이틀곡인 '봄날'은 지난 12일부터 전날 오전 8시까지 기준으

로 83개 국가/지역 아이튠즈 '톱 송' 차트에서 1위를 찍었다. 이 차트에서 무려 6년10개월 만에 역주행하며 정상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연말을 맞아 캐럴 곡들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봄날'은 캐럴 곡의 대명사로 불리는 미국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를 제치면서 여러 국가/지역의 아이튠즈 '톱 송' 차트를 석권했다.

'봄날'은 또한 지난 12-13일 '월드 와이드 아이튠즈'와 '유리피어 아이튠즈' 송 차트에서 나란히 이틀 연속 1위를 지켰다. 이 곡이 11일 기준으로 해외 아이튠즈 차트 중에는 유일하게 네팔(44위)의 '톱 송'에만 들어 있었던 점을 감안했을 때, 단 하루 만에 반전은 놀라다는 평가다.

'봄날'과 '아웃트로 : 티어'의 이번 이례적인 역주행은 방탄소년단 팬덤 '아미(ARMY)'가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빅히트 뮤직은 “기다림을 노래하는 '봄날'에 이어 '아웃트로 : 티어'에는 '나를 보던 그 미소로 여전히 너 나를/그렇게 또 사랑해줄 수 있었을까'라는 가사는 방탄소년단과 아미 모두의 현재 심정을 대변한다”면서 “지난 12일부로 멤버 모두 군 복무에 들어간 방탄소년단의 2025년 완전체 활동을 기다리는 팬들의 따뜻한 마음이 차트 성적에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NCT 드림, 美 '징글볼 투어' 3개 도시 뜨자 '떼창' 터졌다

그룹 '엔시티 드림(NCT DREAM)'이 미국 '2023 아이하트라디오 징글볼 투어'(2023 iHeartRadio Jingle Ball Tour·2023 징글볼 투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16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NCT 드림은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보스턴을 시작으로 11일 워싱턴 D.C., 14일 애틀랜타 등 미국 3개 도시에서 열린 '2023 징글볼 투어' 무대에 올랐다.

원리퍼블릭(OneRepublic), 시저(SZA), 니키 미나즈(Nicki Minaj), 플로 라이더(Flo Rida), 사브리나 카펜터(Sabrina Carpenter) 등 내로라하는 팝스타들과 미국 최대 연말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NCT 드림은 떼창을 이끌어낸 '맛(Hot Sauce)', '아이에스티제이(ISTJ)', '비트박스(Beatbox)' 영어 버전 무대 그리고 클라이맥스를 장식한 '트리거 더 피버(Trigger the fever)'로 큰 환호성을 얻어냈다.

SM은 “관객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고, NCT 드림의 공식 팬라이트를 비롯해 멤버들의 이름이 적힌 슬로건 및 플래카드를 흔드는 등 열정적인 응원을 보냈다”고 전했다.

NCT 드림은 “현지 팬분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고, '징글볼 투어'로 즐겁고 좋은 경험을 쌓은 것 같다.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신 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2024년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는 데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전했다.



“징글볼 투어”는 미국 최대 미디어 그룹 아이하트라디오가 매년 연말, 그 해에 세계적인 활약을 펼친 월드 스타들과 미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대규모 음악 페스티벌이다.